

들인 듯 하나, 하나인 듯 들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세요.”

금요일 밤마다 다른 의미로의 불금이 이루어지는 한 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저마다 마음의 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찾아 온 사람들이 더 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테다. 목사는 기도가 막히고 입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길게 기도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를 권한다.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에서부터 크고 작은 고민거리, 해결되지 않는 삶의 난제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까지 자신의 사연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얘기해 보라는 것이다.

예배당에는 목사가 제안한 기도 방법에 따라 하나님과 긴긴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들리는 기도에 숙련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난 연인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것처럼 일정 간격을 두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도무지 알아 들을 수 없는 방언 기도를 리드미컬하게 읊조리는 사람,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리다가 우연히 듣게 된 옆사람의 기도에 어느새 몰입해버려서 자꾸만 그 기도 내용을 엿듣는 사람, 눈을 꼭 감고 양손을 꼭 모았지만 도무지 입에서 한 마디도 내뱉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한 공간에서 동일한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 나가는 방법과 내용, 기도가 이어지는 시간과 침묵의 간격, 말하는 속도와 말투, 목소리 크기까지 저마다 다양하다.

하나님과의 대화란 어떤 것일까? 성경 기록이나 성령체험기를 다룬 베스트셀러 종교 서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반신반의한 간증 등 몇몇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하나님의 실제 음성을 듣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주셨다’ 등의 실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는 고백이나 후일담을 자주 듣게 된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라는 대화는 어떻게 대화 가능한 것이 될까? 기도하는 자는 기도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이 실제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더라도 기도 응답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응답의 형태로는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특정 성경 구절을 번뜩 생각나게 한다거나, 꿈으로

보여주는 계시 등이 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방식으로 응답이 없더라도 그 침묵 또한 하나의 응답이라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는 모세라는 인물을 향해 하나님께서 40년간 침묵하셨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이 대화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곧잘 지연된다. 우연히 누군가의 기도를 듣게 된다면 그것은 질문만 있고 대답은 없는 조금 이상한 Q&A 시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기도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느 대화의 흐름과 결이 다르다. 기도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거나, 바로바로 답을 주고 받을 수 있다거나,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자신의 의견을 내거나 또는 다른 이의 의견에 동조하는 종류의 대화가 아니다. 이 고독한 대화에서 갖출 기본 자세는 혼자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능력과 대답없는 상대 앞에 좌절하지 않고 이야기를 지속하는 인내, 끈기, 집중력이다.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언제 대답해주실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답을 주실 거라고 믿어야 한다.

이 대화는 얼마나 막연하고 더딘가. 당장에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하고 만날 수 없더라도 휴대전화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상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메시지를 통해 분초 단위로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고, 메시지 창 가장자리에 1이 사라졌는지 남아 있는지에 따라 메시지 확인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는 요즘의 대화에 견주어 하나님과의 대화를 바라보면 더욱이 막막한 기분이 든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는 다른 어떤 대화보다 직접적인 방식을 택한다. 어떠한 도구나 매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의 구애도 받지 않는다. 내가 말하고 싶은 그때에 어떤 장소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해 말할 수 있다. 이는 ‘화살 기도’라는 구체적인 단어로 불리기도 한다. 언제 어디서나 쏘아 올릴 수 있는 투명한 화살으로 외침. 각기 쏘아 올린 화살은 소망, 신세 한탄, 슬픈 심경, 원망, 두려움, 지은 죄의 고백, 병 고침, 감사 등의 내용을 담고 날아 오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해 화살 기도를 쏘아 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부분 기도는 ‘해주세요’, ‘원합니다’의 서술어로 끝나는 요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요일도 아닌 평일 밤 교회에 어떤 사연을 가지고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나, 무시로 하늘을 향해 화살 기도를 쏘아 올리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와 대화하고 조언을 구하는 일보다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가끔 누군가와 코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벽에 둘러 싸인 듯 갑갑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기도라는 대화에서 상대는 코앞에 보이지 않지만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믿음이 전제된다. 따라서 외롭게만 보이는 이 대화가 누군가에게는 그 어떤 대화보다 충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